인문연구 제94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4, No. 1, pp.1~38
http://dx.doi.org/10.21211/JHUM.94.1

문금동 소설 〈인정루〉에 나타난 가족 이별과 재회 양상에 관한 연구*

- 재회 장면의 <춘향전> 변용을 중심으로 -

김현주**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가족과의 이별 양상
3. 〈춘향전〉 변용을 통한 재회 형상화
  1) 출세한 남성의 귀환과 부정한 인물 징치
  2) 정절을 지키는 여성인물들
4. 나가는 말

【국문초록】

고려인 작가 문금동의 장편소설 〈인정루〉에는 가족 이별과 재회가 반복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재회 장면에 등장하는 출세한 남성의 귀환, 수청을 거절하며 정절을 지키는 여성, '사랑가',

* 본 논문은 2020년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칼리지 조교수

암행어사 출두, 부정한 인물 징치 등은 〈춘향전〉의 인물형상화와 내용을 각색, 변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작품에서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자식을 둔 가족 테마로 변용하여 남성중심의 봉건적인 가족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남성들의 대의적 임무수행 능력이 부각되고 있으며, 주인공 옥산에게는 계급타파, 평등사상과 같은 개혁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강제 이주 후 점차 구소련의 사회주의 이념을 따르고자 했던 고려인 희곡 작가들의 고전 수용양상과 그 궤를 함께하는 것이다. 본 논의는 〈춘향전〉이 고려인 희곡뿐 아니라 소설에서도 계승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한국고전과 관련한 고려인 문학 연구의 장르 폭을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가족, 이별, 재회, 춘향전, 변용, 봉건적, 대의(大義), 고려인, 강제 이주

1. 들어가는 말

문금동(1912~1992)의 장편소설 〈인정루〉에는 가족 이별과 재회 장면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별과 재회는 시대를 관통하는 테마이나 가족을 중심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은 강제 이주 후, 부침의 세월을 겪어야 했던 고려인의 삶의 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주인공 문옥산(文玉山)의 삶을 중심으로 작품에 나타난 이별 양상을 살펴보는 한편, 〈인정루〉가 한국 고전문학의 소재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 사랑이야기인 〈춘향전〉을 가족 재회의 테마로 변용하고 있는 데 주목하고, 이것이 서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 전개되고 있

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작품이 한국의 전통을 계승하는, 고려인 이주 문학으로서 지니는 의의와 성과를 밝히는 데 논의의 목적이 있다.

문금동은 연해주 출신으로, 강제 이주 후에는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며 〈인정루〉를 집필하였다.[1] 본 작품은 작가가 직접 수기(手記)한 한글 작품으로, 1962년에 시작하여 1984년에 탈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몇 년간 집필을 멈춘 기간도 있으나, 50대부터 7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창작을 이어간 것이다. 이는 그만큼 작품에 대한 작가의 애착과 열정이 컸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인정루〉에 대해 작가는 "十七-十八세긔 조선국 문명제도와 인민풍습의 내용을 함유한 장편소설"[2]이라 밝히고 있다. 고려인 작가가 이처럼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국의 고전 소재를 작품 창작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가 한국고전을 접한 경로는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 우선 연해주의 청년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들 수 있다. 문금동은 고려인 문단과 교육사업의 선도자 역할을 한 포석 조명희(趙明熙; 1894-1938)의 제자로, 그의 권고로 작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또한 다양한 고전이 공연되었던 당시 연해주의 문화전파 분위기에서

---

1)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로는 〈인정루〉 1-5권, 그리고 부록이 있다. 부록에는 〈인정루〉 5권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5권 분량이 많아 따로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상 5권에 속하는 것이다. 부록에는 그의 또 다른 작품인 〈아부지와 홍범도〉(1987)도 실려 있다. 그런데 번호를 붙여 1. 〈인정루〉, 3. 〈아부지와 홍범도〉라 쓰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2에 해당하는 작품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후 작가 생애에 대한 조사나 자료 발굴 시 이를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2) 문금동, 『인정루』 1권, 서문.

3) 고송무는 조명희의 영향을 받은 고려인 작가로 김증손, 김준, 강태수, 그리고 문금동을 들고 있다. 고송무, 『쏘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이론과 실천, 1990, pp. 178-179 참조.

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 한인극장의 “블라디보스톡 시절은 1932년에서 1937년 사이 5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전문배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춘향전〉, 〈장한몽〉과 같은 민족적 내용의 전통적 연극이 공연되었다.”[4] “강제 이주 후에도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공연은 주로 우리 고전의 수용이었다.”[5] 문금동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고전을 접하고, 이후 콜호스(소련 집단농장)에서 조선시대 전기수(傳奇叟)와 같은 역할을 하며 지속적으로 고전을 수용, 변용해 갔을 가능성이 있다.[6]

또 한편, 〈인정루〉는 한국의 고전문학뿐 아니라 국외 문학까지 활용하고 있으며 우연성, 비현실성이 강한 이야기들을 구술문학의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구술문학의 소설적 변용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이는 내용 및 구성, 그리고 분량적인 면에서도 고려인 문단에서 그 실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작품은 국내외 문학 수용의 복합성과 그 전승 양상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7]

---

4) 위의 책, p. 160.

5) 송재일, 「카자흐스탄 고려인 희곡의 고전 수용 양상과 의미」, 어문연구학회, 『어문연구』 제93권, 2017, p. 279.

6) 문금동은 “중앙아시아로 이주되어 온 뒤 여러 가지의 일을 했고 전쟁 후는 타쉬켄트 시 부근 끼로브 명칭 꼴호즈에서 일했다.” 고송무, 앞의 책, p. 179.

7) 지금까지 고려인 문학과 관련하여서는 문학사 개괄을 비롯하여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인식 및 정체성 문제를 짚는 논의들이 많았다. ≪선봉≫과 ≪레닌기치≫에 실린 작품들의 문예사상적 특징과 문학 전개양상을 살핀 것이나 조명희의 문학정신이 정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계승, 변용되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홍범도 형상화에 대한 논의들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이들 연구는 고려인 문학의 특수성을 구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작품 자체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지지는 못한 상황이다. 차후, 작품 연구방법의 다양성 또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문금동과 같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가나 작품 발굴을 위한 현지 조사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진구,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인정루〉에 대해서는 1990년, 고송무에 의해 일찍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2017년에야 비로소 작품이 국내에서 출판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상황이다.[8] 지금까지

역사 복원 욕망 연구-김세일의 장편소설 〈홍범도〉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연구』 제25호, 2004.; 강진구, 「제국을 향한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의 자기 고백 :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특징」,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제29집, 2006.; 강회진, 「≪레닌기치≫에 수록된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비평 고찰」, 시학과언어학회, 『시학과 언어학』 제30호, 2015.; 강회진, 「중앙아시아 고려인 극평 고찰-신문 ≪레닌기치≫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제41호, 2017.; 김종회 엮음,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1937~1991)』, 강남대학교출판부, 2004.; 반병률, 「러시아 지역 한인신문 ≪선봉≫과 1920·30년대 한인사회」, 한국외국어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제19집, 2003.; 배은경·임영상, 「원동 고려문단의 형성과 그 초기작품 연구-고려인 신문 ≪선봉≫에 기초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제56집, 2015.; 우정권·임형모, 「고려인 문학의 성격과 전개 양상: 1940~60년대 ≪레닌기치≫ 문예면에 나타난 고려인 문학의 특징 고찰」,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44호, 2010.; 이명재,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 한국문화사, 2004.; 임형모, 「강제적 '집단이주'의 인간학-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강제이주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51호, 2012.; 장사선·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 월인, 2005.

8) 작품은 31년이 지난 2017년에 국내에서 출판되었다. 출판자료는 수기 형태 그대로 싣고 있으나, 분량이 방대하여 1-9권으로 나누어져 나왔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본고는 작품 인용 시,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원본 4권, pp. 529-530 없음. 내용이 누락된 것은 아니고, 페이지 수를 잘못 매긴 것으로 보임.)

〈표 1〉 원본 출판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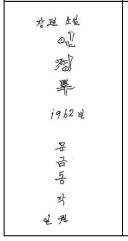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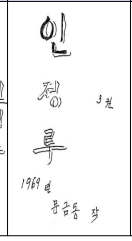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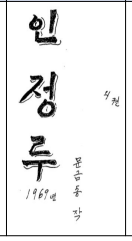
원본	출판 사항
1권 pp. 1-684.	pp. 1권 1-2권 204.
2권 pp. 1-787.	pp. 2권 205-3권 489.
3권 pp. 1-810.	pp. 4권 1-5권 312.
4권 pp. 1-773.	pp. 5권 313-7권 101.
5권 pp. 1-910.	pp. 7권 101-8권 532.
부록 pp. 1-168.	pp. 9권 1-168.

※ 문금동은 각 권의 앞에 집필 시작 연도와 마지막 페이지에는 탈고한

의 선행연구로는 4편의 논문이 있다.[9] 타치아나 심비르체바·임경화는 문금동이 작품 출판을 위해 애썼던 과정을 밝히고, 그의 삶의 궤적을 조명하였다. 또한 본 작품이 중국의 인정소설류에 기원하는 전통적인 소설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과거 전통을 사회주의 이념 속에서 비판적으로 계승하고자 한 1920, 30년대 고려인 문학예술창작운동의 정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10] 김현주는 〈인정루〉가 과거 삶의 양상을 소설로 재현하는 방식을 통해 이주와 유랑 속에 흩어진 전통을 수집, 보존한 것으로서 이는 디아스포라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 찾기를 위한 작가의 자기 서술방식이라 보았다. 나아가 본 작품은 고려인 삶의 역사적 기록과 증언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하였다.[11] 또 다른 논의에서는 과부 형상화를 중심으로 금기 위반 양상을 살펴보고, 작품의 궁극적 주제가 인정

연도를 적고 있다. 출판자료에서는 시작 연도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러나 연도는 작품의 주요 정보이므로 원본 형태대로 다음과 같이 밝혀둔다.

〈표 2〉 각 권의 시작 연도

1권, 1962년	2권, 1967년	3권, 1969년	4권, 1969년	5권, 1984년	부록
					

9) 그의 또 다른 작품인 〈아부지와 홍범도〉와 관련하여서는 한 편의 논문이 있다. 김현주, 「문금동의 자전적 소설 〈아부지와 홍범도〉 연구」,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제79집, 2018.

10) 타치아나 심비르체바·임경화, 「고려인 작가 문금동과 그의 장편소설 『인정루』 소개 및 시론적 고찰」,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35집, 2014.

11) 김현주, 「문금동 소설 〈인정루〉 연구」,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제77집, 2017.

을 기반으로 한 행복한 삶의 추구에 있음을 밝혔다.[12] 〈인정루〉에 등장하는 고담(古談)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전통설화들을 구술문학의 형태로 새롭게 변용해 담아내고 있으며, 권선징악이라는 고전 주제뿐 아니라 계급투쟁에 입각한 평등사상, 반제국주의 시각을 그려내는 등, 시대를 넘나드는 주제들을 동시에 담고 있어 고려인의 복합적인 문화, 역사 인식 및 문화전승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작가의 한국어 글쓰기와 말하기가 갖는 의미와 작가정신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였다.[13]

이러한 논의들은 문금동 작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인정루〉의 문학적 성과와 이것이 고려인 디아스포라 삶에 갖는 의미를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른 고려인 작품과의 비교연구, 작가가 살았던 구소련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사회, 정치, 언어문화정책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 등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짚고 있는, 한국 전통의 고전 이야기 소재들을 이주의 역사 체험 속에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정루〉는 〈춘향전〉이 고려인 소설에서도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 문학사적으로나 사회문화와 관련해서나 의미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본 작품에는 수청들기를 강요하는 탐관오리, 수탈당하는 백성,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인들, 암행어사 출두, 부정한 인물 징치 등이 그려지고 있으며, 재회의 기쁨을 노래하는 데에 '사랑가'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는 〈춘향전〉의 인물형상

12) 김현주, 「문금동의 장편소설 〈인정루〉에 나타난 금기위반 양상에 관한 연구-과부(寡婦)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언어학회, 『어문론총』 제77호, 2018.

13) 김현주, 「〈인정루〉의 '고담(古談)'에 나타난 한국 전통설화 변용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제142집, 2018.

화와 내용 구성을 각색, 변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려인의 구비설화, 희곡 작품에서 한국고전 문학을 변용한 예는 찾아볼 수 있으나,[14] 이처럼 소설에서 본격적으로 고전을 활용한 예는 본 작품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의는 〈인정루〉의 문학적 특성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고전과 관련한 고려인 문학연구의 장르 폭을 넓힘으로써 고려인의 고전 수용양상과 문화정체성을 구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2. 가족과의 이별 양상

〈인정루〉는 하나의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인물 간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이야기집처럼 주인공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주변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액자식 구성의 고담(古談) 등, 짧고 긴 이야기들이 다소 비유기적으로 서술돼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작품 전반에 걸쳐 가족을 잃은 과부, 홀아비, 고아가 등장하고 있으며, 헤어졌던 가족과 재회하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4) 이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강현모, 「우즈벡 고려인의 구비설화 전승양상과 의미-전승방식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제45집, 2011.; 강현모, 「우즈벡 고려인의 구비설화의 양상」,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제47집, 2012.; 강현모, 「우즈벡 고려인 구비설화의 전승내용과 의미」,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제51집, 2013.; 송재일, 앞의 논문.; 이복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 연구」, 동아시아고대학회, 『동아시아고대학』 제16집, 2007.; 조규익, 「고려인 극작가 연성용의 고전 수용 양상-〈창곡이와 홍란〉·〈지옥의 종소리〉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회,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6호, 2012.; 조규익, 「카자흐스탄 고려인 극작가 한진의 고전 수용 양상-〈량반전〉과 〈토끼의 모험〉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제162호, 2012.

이별 모티브는 〈춘향전〉과 같은 애정소설을 비롯하여 여러 고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이다. 그러나 본 작품에서는 연인과의 이별이 아닌, 자식을 둔 가족 이별이 주요 테마가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집 떠남의 원인도 가난 극복이나 대의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는 주인공 문옥산(문용남으로 서술되기도 함.)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옥산은 호랑이에게 부모를 잃고, 하루아침에 혈혈단신 고아가 돼버린다. 작품 초반에 등장하는 부모의 죽음은 본 서사가 옥산의 고달픈 삶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임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친척도 없던 그는 이후 유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가운데 가족과의 이별이 여러 형태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옥산은 네 번에 걸친 결혼에서도 매번 이별을 경험한다. 부부간 관계 조율의 문제나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한 차례뿐이며, 부인의 죽음이나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부득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정과 행복을 보장받는 가정, 혹은 때로는 가족 구성원 간 인정투쟁의 갈등을 감내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나가는 그러한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의 첫째 부인 초산은 산후병으로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둘째 부인 매월은 부정(不貞)을 저지른 대가로 죽임을 당한다. 셋째 부인 버들꽃은 결혼식 날, 강도에게 납치당했으며, 넷째 부인 백화는 옥산과 어렵게 재회하여 행복을 얻기도 하지만, 결국 먼저 세상을 뜨고 만다. 네 명의 부인 가운데 세 명은 죽음으로, 또 한 명은 부정한 사건으로 이별하게 되는 것이다.[15] 이렇게 반복되는 만남과 이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5) 옥산의 불안정한 삶과 정착에의 열망은 네 번에 걸친 그의 결혼이 말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김현주, 앞의 논문(2017)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한다.

첫째 부인 초산: 만남-이별-재회-이별
둘째 부인 매월: 만남-이별
셋째 부인 버들꽃: 만남-이별-재회
넷째 부인 백화: 만남-이별-재회-이별-재회-이별

이렇게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 탓에 옥산은 자식과도 헤어져 살 수밖에 없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이웃집 아이가 자귀에 찍혀 죽자 시신을 유기한 일이 있다.[16] 매월이 이를 폭로하여 옥산은 살인죄로 죽을 위기에 처한다. 이에 화란(초산의 몸종)은 그를 살릴 묘책을 짜낸다. 그녀는 일남이 백두산 산신령으로 위장하여 사람들에게 차돌은 명(命)이 다하여 그리된 것이며, 옥산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잠시 인간 세상에 내려온 선인으로서 득천(得天)할 인물이라 알리도록 시킨다. 득천을 구실로 옥산이 떠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옥산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집을 떠나게 된다.

그들은 서로 위로하며 그 음식을 권하니 옥산이는 일남이를 보고 일은 글세 무사하게 될 듯하나 장차 생리별할 일이 애처롭아 한숨 쉬고 눈물 흘니거날 일남이 그의 부친과 말하기를

아부지! 울지 마서요. 아부지가 낙노하시면 나는 실노 가슴이 터지는 같아여요. 조곰이라도 서겁흔 마음을 두시지 마르시고 이 음식을 포식하시요.[17]

---

16) 옥산이는 큰 자구를 가지고 마판널을 다듬어 마판널을 깍는데 지금 옥산이는 자구질이 자심하여 살필 사이 없는지라. […] 불행으로 그 자구가 잘못 떨어지어 눈결에 옥산이 보니 그 아해가 […] 목이 찍히워 떨어지는지라. […] 그 아해 시신을 파묻고 옥산이는 얼는 마판을 손질하여 놓으니 이 사건은 누구던지 모르게 되고 깜쪽같이 되엿지만 『인정루』 1권, pp. 156-157.

17) 위의 책, p. 599.

옥산이 떠나기 앞서 일남은 음식을 대접하며 그를 위로한다. 춘향이 떠나는 몽룡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이별의 정한을 달래듯 일남 역시 음식으로 자신의 아픔을 감내하며, 아버지와의 이별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옥산은 신성한 사람으로 추앙되어 배를 타고 떠내려가게 되고, 아들과도 기약 없는 이별을 한다.

이뿐 아니라 아들 금봉은 버들꽃이 납치당한 후 홀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옥산은 그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백화가 낳은 딸 잇뿐이 역시 옥산이 두 번에 걸쳐 집을 떠나면서 만나지 못하고 산 세월이 있다.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자 한 바람과는 달리 그는 부모, 아내, 그리고 자식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과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착보다 어려운 것은 이처럼 자신이 일군 가정과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다. 이는 본 작품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조선시대, 문중을 이루고 살던 전통 씨족사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가정이라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도 갖출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별은 옥산의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조선사회에서 가장(家長)의 존재와 위상은 여성뿐 아니라 자식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짓는 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버들꽃과 백화는 홀로 자식을 키워야 하며, 자식들은 아비 없는 자식으로 성장하는 불우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특히 첫째 부인 초산의 아들인 일남, 이남은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부재로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효'는 가정과 사회윤리의 근본으로, 그 대상인 부모가 부재하다는 것은 개인적 불행을 넘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체성 문제와도 연관되는 것이다. 이는 연인들의 이별 정경과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정루〉의 또 다른 이별 유형으로 권력과 출세의 상징인 평양감사와 기생 간의 이별을 들 수 있다. 리정승(초산의 전 시아버지)과 완월, 박대감(박영남)과 월계의 이야기가 이에 속하는 것으

로, 두 이야기는 여러모로 공통점이 있다. 본부인이 있던 리정승과 박대감은 평양감사 시절, 기생과 인연을 맺게 된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자 여인들을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얼마간의 재물을 준 다음 떠나버린다. 이후 완월은 아들 일심을, 월계는 딸 송죽을 키우며 외롭게 살아가게 된다.

> 리정승은 사십이 넘어 대과를 하니 그 벼슬이 웃뜸하여 **평양감사**로 점지되여서 평양감사로 게시다가 그가 승직하여 내직으로 올나와서 정승의 배을노 게시는 분인데 평양감사로 그가 **삼 년** 동안 **외몸으로 가 있을 때**에 완월(完月)이라는 긔생을 수청하여 속사기엿더니 긔여 일 년만에 그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앗은즉** 소사에 외방 작첩하여 천한 긔생의게서 아들을 보앗다는 말이 소문되면 **전하에서도 책언**할 것이요 남의 소사에도 무엇하여 그의 애정은 가득하지만 승직하여 그가 올 때에 **긔생의 명녹에서 빼고 대강 있는 재물을 밀어주고** 올나와 대부인과도 연총이 없고 그의 후종함이 무정하엿더니[18]

> 옳지 월계는 긔생으로 내가 **평양감사**로 있을 때에 한나 **젊은 협긔에 고향에 대부인을 두고** 마음이 변통되야 고향 생각이 간절할 때에 그의 재조-인물-성질이 부드럽어 내가 그를 극진히 낫구고 나의 마음을 안정식히며 평양감사 재 **삼 년** 하는 그동안에 인정이 들어 속사기던 긔생인데 내가 내직으로 승직하야 상경할 때에 눈물노 리별하던 긔생이라. 그와 애정으로 말미아마 더리고 가자면 **전하에서 아르시고 극진히 책언**할 것이고 그를 더지고 가자면 남자의 성격에 좀 무엇한 생각이 간절하야 서로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할 환경에서 수일 속상하던 긔생 월계라 […] 너는 가는 나를 썹〃히 생각지 말고 너와 나와 인정이 들어 **포태된 아해**나 생천 하거든 남녀 간에 고히〃 자래와 낙을 보라 하고 평양감사 륙년 동안에 얼마 생긴 **재전과 보화 집까지 짛어 주고** 그와 썹〃한 말노 우리 서로 앞으로 깁분 상봉은 있으리라 하고 그를 내가 가며 **퇴긔로 긔안에서 일홈을 빼게 하고** 평민

18) 위의 책, p. 67.

가 게집으로 자유롭게 살게 한 게집인데[19]

(공통점 강조 및 밑줄은 인용자.)

권력을 가진 남성과 기생과의 만남과 이별은 고전의 익숙한 소재이다. 그러나 본 작품에서는 이 역시 가족과의 이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식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작품의 배경이 조선시대임을 감안해 볼 때 첩도 가족의 일원이라 볼 수 있으며, 이들 사이에 자식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단순히 낭만적 사랑을 노래한 것만은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본 작품에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과 이별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리정승은 완월과 재회하기 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낙상으로 죽고, 그 충격에 부인마저 세상을 뜨는 슬픔을 당한 바 있다. 그리고 완월과 재회하고 몇 년 후에는 자신도 병으로 죽는다. 옥산의 부인 초산과 백화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초산의 몸종 화란도 병으로 어머니를 잃는다. 백화의 몸종인 모란은 옥산을 돕다 위기에 처하자 집을 떠나고, 홀로 계신 어머니 게월과도 헤어지게 된다.[20] 이처럼 부모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홀아비와 과부들이 작품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1] 이들의 이별에는 가족 간 갈등에 원인이 있기보다 병사, 혹은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것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19) 『인정루』 4권, pp. 55-57.

20) 모란은 백화의 몸종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김부자의 딸로 백화의 이복동생이다. 게월은 하인으로 있을 때 김부자의 겁탈로 모란을 낳는다. 게월은 이후 박영춘과 결혼하여 아들 세쌍둥이를 낳는다.

21) 홀아비: 초산 아버지, 버들꽃 아버지, 리일심, 김대동, 박춘군, 문응철, 김성도, 여관 주인의 고담 속 남자 등. 과부: 초산, 화란 엄마, 고담 속 거북 엄마, 열녀문 9개 있는 부잣집 10대 며느리, 박철환 누이 등.

이처럼 본 작품에서는 가족 상실과 이산의 문제를 주요 모티브로 삼고 있다. 가정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이별의 강제성, 떠남의 문제 등은 고려인의 역사적 체험과 닮아있는 부분으로, 이주 고려인 문학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고향을 터전으로 한 문중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으며,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친인척이 등장하지 않는 것 또한 본 작품의 특징 중 하나로, 이는 정치적 상황에서 안정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었던 이주민들의 삶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옥산의 결혼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안전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 고려인들의 정주(定住)에 대한 희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인들이 생존 투쟁의 현장에서 삶의 변화를 일구어 갔듯이, 역설적으로 가족과의 이별은 옥산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또 다른 삶을 살아내게 하는 동력이 됨으로써 자아의 확장과 새로운 정체성 정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이별 후 노동자에서 암행어사에 이르기까지, 그가 얻게 되는 다양한 직업이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3. 〈춘향전〉 변용을 통한 재회 형상화

1) 출세한 남성의 귀환과 부정한 인물 징치

〈인정루〉에는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탐관오리의 폭정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고전소설의 결말처럼 권선징악의 주제가 실현되며, 헤어졌던 가족들은 모두 다시 만나 행복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출세한 남성의 귀환과 부정한 인물 징치(懲治), 그리고 정절을 지키며 살아온 여

성의 삶은 이들의 재회를 의미 있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를 형상화하는 데 〈춘향전〉의 장면들이 다양하게 연출, 각색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하겠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재회 장면뿐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도 〈춘향전〉이 인용되고 있으며,[22] 옥산이 산골 훈장으로 있을 때에는 전기수(傳奇叟)처럼 〈춘향전〉을 읽어주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23] 연해주 출신인 작가가 한국 고전소설의 인물 캐릭터와 스토리까지 소상히 알고 있으며, 이를 작품 창작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고려인 사회에서 한국어뿐 아니라 전통문화가 상당히 뿌리 깊고 폭넓게 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고려인들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전을 연극무대에 올렸으며, 그 가운데 "카자흐스탄에서는 구소련이 해체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까지 공연된 작품 중에서 〈춘향전〉이 가장 많았다"[24]고 한다.

재회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으로는 우선, 출세한 남성의 귀환을 들 수 있다. 평양감사, 함경감사, 암행어사 등으로 대표되는 남성의 출세는 본 서사를 행복한 결말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출세를 위한 남성들의 노력 과정이 그려지지 않는다

---

22) 옥산이 부는 퉁소 소리의 흥을 비유하는 데서 〈춘향전〉이 인용된다. "성춘향이 옥중에 갓겻다가 리도령이 대과하고 암행어사로 출도하니 춘향은 가는 목숨이 죽지 않고 살아나서 성춘향과 리몽뇽이 맞나 깁버할 때 그의 어미 월매가 엉덩이 춤을 출 때에 맞아주던 곡조로구나 얼시구나 지화자 좋아라." 『인정루』 1권, p. 318.

23) "그는 소설 춘향전을 큰 가래를 한 번 떼고 고성대독으로 늙어 가성을 높이니라. 춘향전이라 하면 소설 가온대에도 작가의 힘이 무한이 크엇씀으로 그 작품이 소설 가운대에도 독자들의게 많은 환영을 바드며 그때 시절에 남성과 녀성의 진실한 연애를 그린 소설인데 가성을 곱게 하야 한번 초성을 좋게 늙으면 사람의 감정이 변동되야 깁분 때에는 그 마음이 흡사하야 청심환 먹은 것처럼 씨원하고 […]" 『인정루』 2권, pp. 239-240.

24) 송재일, 앞의 논문, pp. 280-282 참조.

는 점이다. 옥산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의적(義賊)처럼 부자들의 돈을 뺏어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아들 일남인 줄 모르고 그의 글을 훔쳐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기도 한다.[25] 아들 일남도 장원급제하여 함경감사가 되는데, 이 역시 결혼을 약속한 선옥이 대신 시험을 친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구성, 서사의 비약은 황당한 웃음을 유발하는 한편, 사회질서를 파기함으로써 부당한 현실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옥산은 암행어사가 된 후,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조선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며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부모 산소를 찾아보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었던 훈장선생을 만나 그간의 일을 소상히 고하는가 하면, 버들꽃을 만났던 곳에서는 그곳 선생과 그녀가 납치당했던 일을 떠올리기도 한다. 과거 흔적이 담긴 장소를 찾고, 자신의 내력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삶을 공유하는 일은 자기 인정과 발견, 곧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성공한 옥산이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암행어사로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환기하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여정을 거쳐 옥산은 네 번째 부인, 백화가 사는 마을로 돌아온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장인어른 김부자 때문에 두 번씩이나 집을 떠났었다. 이전에 큰 재산을 모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김부자의 계략에 맞설 수 없었으나, 이제 암행어사라는 권력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가족을 되찾고 김부자의 죄를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옥산은 바로 김부자를 응징하지 않고, 신분을 감춘 채 일부러 거지가 된 것처럼 하여 나타난다.

---

25) 옥산은 돈을 뺏어 빈민을 구휼하고, 고아 교육에 힘쓰기도 한다. 이후 고아 선학이는 자신의 딸 잇뿐이와 결혼시킨다. 작품에는 홍길동과 같은 옥산의 면모를 볼 수 있다.

> 소신이 빈장님 슬하를 떠나 상경하여서 수년 과거 장이나 하여 공명을 어들가 하다 보니 수중에 얼마 있던 돈을 다 서 버리고 공노도 못 얻고 일푼전 난득으로 먹고 입을 것이 없이 산디사방으로 의식을 찾아 지렁뱅이로 난 돌다가 할 수 무가 내로 거러지 되야 가스부모도 반부모는 되기로 처권도 볼 겸 빈장빈모의게 면목을 뵈우려 넘치 불긔하고 찾어왓사오니 용서하시기를 바라나이다.[26]

장원급제한 이몽룡이 주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거지 행색으로 춘향 모(母) 월매를 찾아갔던 것처럼, 그 역시 김부자와 백화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변장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는 몽룡처럼 거지가 된 원인을 과거 시험에서 찾고 있다.[27] 이렇게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신분 모두를 잃은 거지라는 설정은 서사의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극적 반전 효과와 카타르시스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극적인 요소뿐 아니라 빈천함에 놓임으로써 알 수 있는 상대의 진심, 그리고 삶의 지혜를 풍자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도 효과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신분 변장뿐 아니라 여장(女裝), 남장(男裝)과 같은 변장 모티프가 자주 등장하는데[28] 이는 주로 위험에 대처하거나 안전하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옥산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김부자는 겉으로는 옥산을 대접하는 척하지만 여전히 그를 구미호로 여겨 죽일 계획을 세운다. 옥산은 변장 덕분에 이러한 주변의 정황을 파악하고 마침내 안전하게 암행어사

---

26) 『인정루』 4권, p. 521.

27) 〈춘향전〉 대목은 다음과 같다. "양반이 그릇되매 혀언할 수 없네. 그때 올라가서 벼슬길 끊어지고 탕진가산하여 부친께서는 학장질 가시고 모친은 친가로 가시고 다 각기 갈리어서 나는 춘향에게 내려와서 돈 천이나 얻어갈까 하였더니, 와서 보니 양가 이력 말 아닐세." 작가 미상, 〈완판 열녀춘향수절가〉, 『춘향전』, 이석래 역주, 범우, 2009, p. 205.

28) 초산, 화란, 모란은 남장을 하고 집을 떠나고, 옥산은 여장을 하고 춤을 추기도 한다.

출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용남이 그들의 앞에 가 앉앗는데 박게서 말소리 요란하고 울타리 밖게서 말 발굽소리 요란한데 불시에 대문을 두다리며 암행어사 출도 소리 요란하거날 […] 김부자와 의사는 교사쟝으로 끌녀 나가는 살인자가 되야 앉앗는데 […] 문어사는 어복으로 단장하고 선거름에 선듯 나서 문 밖그로 나설 적에 머리에는 어사화요 몸에는 청삼이라 수백 명 역졸들이 늘어서고 마군역졸 가즌 풍악 소래에 발맛초아 어마 탄 어사님을 보조하야 들어오고 수천 명 그 촌 백성들이 억개춤이 절노 난다.[29]

김부자는 결국 죄인으로 끌려나오게 된다. 그러나 옥산은 그를 용서해 주고 첩과 종, 소작인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으로 죗값을 치르게 한다. 사적인 원망과 복수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억울한 송사를 해결하는 일에 힘씀으로써 대의적인 인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부자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분배해주는 모습은 몽룡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몽룡이 암행어사임이 밝혀졌을 때 장모인 월매의 기쁨이 해학적으로 그려졌던 데 반해, 여기에서는 백성들의 기쁨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옥산의 공적 역할 강화는 본 작품이 사회소설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옥산 외, 또 다른 출세한 인물로는 박대감을 들 수 있다. 그는 갑자기 출세한 인물은 아니나 권력을 지닌 남성의 귀환이라는 점, 그리고 부정한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옥산과 유사한 인물유형으로 분류된다. 임금은 구대 독자인 박영춘이라는 자가 나이 오십에 아들 세쌍둥이를 낳자, 이를 상서로운 일로 보고 상(賞)과 함께 박대감을 대신으로 내려보내 대연(大宴)을 베풀도록 한다.

---

29) 『인정루』 4권 pp. 701-703, p. 711.

이에 평양으로 온 박대감은 임금의 명을 받드는 한편, 탐관오리들을 응징한다.

평양감사 김득보는 나이 육십이 넘어 득과한 자로 백성을 수탈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옥에 가두는가 하면, 어린 여인들을 잡아다 수청들기를 강요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말하자면 그는 〈춘향전〉의 변학도와 같은 인물인 것이다. 박대감의 딸 송죽도 기생으로 올리려는 데 반항하다 어머니 월계와 함께 옥에 갇혀 있다. 고통받는 백성의 처지는 〈춘향전〉을 인용한 다음 구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 인민에게는 상하층을 구별하고 쌍놈과 종-상전과 귀족을 가리어 미신적 암흑에서 상전과 귀족들이 여지없이 불상한 빈민-종과 쌍놈들이라는 층을 착취하는 조선국 빈민들에게는
> 금주미주는 천인혈이요
> 옥반가효는 만성곡이라
> 촌누낙지 민누락이요
> 가성고초에 원성곡이라[30]

이는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변학도의 잔칫상에서 가렴주구하는 양반들을 비판하며 쓴 어사출두시(御史出頭詩)이다.[31] 본 작품에서는 이것이 서술자의 목소리에 담겨 박대감의 활약을 예견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박대감에 의해 결국 탐관오리들은 응징을 당하고, 김득보는 도망가는 길에 민란을 만나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구경거리가 되는 참극을 연출한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백성들은 모두 구제되며, 박대감도 월계 모녀와 극적인

30) 위의 책, p. 16.

31)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에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경판 춘향전〉, 『춘향전』, 앞의 책, p. 48.

상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출세한 남성의 귀환으로 부정한 인물들은 응징되고, 현실모순들은 일순간 타개된다. 살펴보면 옥산과 박대감은 이몽룡을, 김득보는 변학도와 같은 인물을 변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몽룡이 줄곧 양반 지배계층이었던 반면에 옥산은 떠돌이 노동자에서부터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다 암행어사라는 신분 상승을 이룬 인물이라는 차이가 있다. 일심(리정승의 아들)의 경우에는 기생 출신의 어머니를 둔 서자(庶子) 신분임에도 평양감사가 되어 장인어른인 박대감의 명을 받들기도 한다. 이는 신분질서에 보다 열린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궁핍한 자들의 삶을 체험한 인물들을 통해 인간 세상의 모순을 인식하고, 좀 더 의로운 사회를 정립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인물형상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작품에 낭만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긴 하나 〈춘향전〉에 비해서는 약화돼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구조적 모순을 타개하는 남성들의 대의적 임무수행 능력, 즉 정치적 역량이 부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32] 백화에게 자신이 어사임을 밝히는 옥산의 편지글 가운데 "이천만 동포의 정사를 나는 어사되야 살피다 보니 너의에게 늦게 옴이 죄송하고나"[33]라는 말에서도 그가 공적 임무를 우선시하는 인물임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재회 전후, 암행어사로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그려지는 데서도 이러한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이념성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사랑의 완성으로 끝나는 〈춘향전〉과 차별화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

32) 옥산은 훈장으로 있을 때 산골사람들을 문명화하는 데 힘을 쏟기도 한다. "이 산수갑산에는 빈민들이 궁벽한 촌에 들어와 생애를 위하야 사는 인민들인데 양반 상전이 없고 노예가 없으며 제 로력으로 살아가는 풍속이라. 실노 인민의 제도착취가 없고 구속이 없는 풍속이라 좋은 곳인데 이들도 글을 배호고 남들과 같이 유식하면 이들도 얼마나 문명스럽고 행복스럽게 살아가랴." 『인정루』 2권, pp. 785-786.

33) 『인정루』 4권, p. 716.

주목되는 점은 '이 천만 동포의 정사'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구수로 보자면 이는 17, 18세기 조선이 아닌, 적어도 20세기 초반의 조선 정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동포라는 말 역시 왕조시대의 단어로 보기는 힘들다.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작품에 그려지고 있는 도탄에 빠진 백성은 먼 과거의 조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인의 삶을 투영한 것이자 나아가 작품 창작시기, 정치적 압제에 놓인 당대의 민중을 상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옥산은 암행어사가 되기 전에도 작품 곳곳에서 계급타파, 평등사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34] 이는 구소련의 사회주의 이념적 지향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강제 이주 후,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점차 당성과 이념성을 따르고자 했던 고려인 희곡 작가들의 고전 수용양상과 그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서 〈인정루〉 역시 고려인 사회의 정치, 문화적 영향하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35]

---

34) 이러한 태도는 작품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무지한 인간 백성들의게 한우님이 있고 선간 세상이 그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 공포하고 정결 처에 결당을 짛고 성경당을 무어 선간 세상이 있다 숭배하게 함은 이는 그때 실정에 사회질서가 황제가 있고 그 아래로 신하가 있으며 재상이 있고 양반 상전이 살아 상전과 종을(쌍놈)분종하야 게급이 철니 같던 시절이라. 그들은 사람으로 사람을 착취하는 방식에서 지배게급이 피지배 게급에게 굴선케 하고 그들이 한누 평생 대〃 손〃이 평안하게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잘살기 위하여 무산게급의게 마취식히는 정책인데"『인정루』 2권, pp. 91-92.

35)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공연된 희곡에 수용된 고전은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별주부전〉, 〈홍길동전〉, 〈옥루몽〉, 〈양반전〉, 〈배비장전〉 등 다양하다. […] 강제 이주는 고려인들이 근동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크게 흔들어놓았다. 개작을 거듭하면서 당성과 인민성이 강조되어야 좋은 작품이고 또한 그렇게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고려인 작가들은 우리 고전 작품을 당성과 인민성에 충실하도록 개작, 각색하여 공연하였다." 송재일, 앞의 논문, p. 297.

2) 정절을 지키는 여성인물들

남성들이 떠난 이후, 여성들은 정절을 지키며 기다림의 세월을 보낸다. 남성의 출세뿐 아니라 이러한 여성의 정절은 재회를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출세는 가족 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적 영역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것인데 반해, 여성의 정절은 부부 간 신뢰를 확인하고, 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서 남성인물에서 볼 수 있는 정치성이나 이념성이 여성인물 형상화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봉건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그리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

돌아온 남성들은 여성의 정절을 시험하며 재회의 순간을 지연시킨다. 옥산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주변을 탐색하면서 백화가 재가하지 않고 혼자 사는지 묻는다. 그리고 거지꼴로 백화 앞에 나타나 그녀의 반응을 살핀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백화는 옥산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반기고, 이에 두 사람은 '화초단가'와 '유산가',[36] 그리고 '사랑가'를 번갈아 부르며 재회의 기쁨을 누린다. 먼저 옥산의 노래가 시작된다.

> 내가 사랑가를 불너 부인에 서리엿던 설음을 풀어 주고 성수나서 춤추게 할터이야. 하며 북을 둥〃 울니며 사랑가를 부르겟다.
>
> 사랑가
>
> 어허 둥〃 내 사랑아/ 네 죽어도 내 못 살고/ 내 죽어도 네 못 살니라./ 어허 둥〃 내 사랑아/ 우리 둘이 서로 사랑타가/ 앗차 한번 죽

36) 『인정루』 4권, pp. 574-580에 걸쳐 긴 노래가 이어진다. 유산가는 단어와 표현 몇 부분이 다르나 봄철 풍류를 읊은 고전시가 유산가(遊山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외에 기생 정곡이 부르는 노래도 등장하고 있다. 차후, 〈인정루〉에 삽입된 고전시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게 되면/ 후생 게약 서로 하자/ 너는 죽어 무엇되며/ 나난 죽어 무엇 되리/ 너는 죽어 천상에 은하수/ 지하에 장강대해 다 바리고/ 칠년 태한에도 마르지 않은/ 음양수라는 물이가 되고/ 나난 죽어 새가 되여/ 청조 황조 앵무공작 다 바리고/ 원앙조라는 내가 되여/ 연파옥수간에 백옥황강적으로/ 주야 살아 놀게 되면 내인줄 알녀무나/ 둥〃 내 사랑 어허 둥〃 내 사랑[37] (빗금은 인용자.)

노래 시작에 앞서 '사랑가'라는 제목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작가가 실제로 〈춘향전〉을 의식하고 작품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향전〉의 "은하수 폭포수 만경창해수 청계수 옥계수 일대장강 던져두고"는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은하수/ 지하에 장강대해 다 바리고"로, "요지일월 청조 청학 백학이며 대붕조 그런 새가 될라 말고"는 "청조 황조 앵무공작 다 바리고" 등으로 비유와 수식이 축약된 형태를 보이며, 몇몇 단어들이 변용되고 있으나 원작의 주요 내용과 소재들은 그대로 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38] 그러나 이몽룡과 춘향이 이별 전에 불렀던 '사랑가'를 이처럼 재회 장면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데서 본 작품이 사랑의 정점을 청춘남녀의 낭만적 사랑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애, 나아가 가정의 회복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이어서 백화가 답가를 하고, 옥산이 또 다시 노래를 이어가며 '사랑가'가 마무리된다.

---

37) 위의 책, pp. 582-583.

38) 인용 부분에 해당되는 〈춘향전〉의 '사랑가'는 다음과 같다. "생전 사랑 이러하고 어찌 사후기야 없을쏘냐 […] 은하수 폭포수 만경창해수 청계수 옥계수 일대장강 던져두고/ 칠년태한 가물 제도 일생 진진 처져 있는 음양수란 물이 되고,/ 나는 죽어 새가 되되/ 두견조도/ 될라 말고/ 요지일월 청조 청학 백학이며 대붕조 그런 새가 될라 말고/ 쌍거쌍래 떠날 줄 모르는 원앙조란 새가 되어/ 녹수에 원앙 격으로 어화둥둥 떠놀거든 날일 줄을 알려무나/ 사랑 사랑 내 간간 내 사랑이야." 〈완판 열녀춘향수절가〉, 앞의 책, pp. 110-111.

용남이 사랑가를 끝을 맺으니 백화 성수를 참지 못하야 용남의 사랑가에 댓고 하야 또 사랑가를 부르겟다.

사랑가

둥〃 내 사랑아/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장내 진사를 모신 듯/ 장내 급제를 모신 듯/ 교외 수찬을 모신듯/ 참에 참관을 모신듯/ 륙조판서를 모신듯/ 삼정승을 모신듯/ 긔사 당상을 모신 듯/ 둥〃 내 사랑/ 어허 둥〃 내 사랑/ 동정 추월 달 밝은데/ 무산천봉 높은 사랑/ 목낙 무변수 여천에/ 창해 같이 깁흔 사랑/ 삼오신정 밝은 밤에/ 무산천봉 완월 사랑 […] 어허 둥〃 내 사랑이지 […]

용남이 양손에 또 북채를 갈나 쥐고 백화의 사랑가에 댓고 하겟다.

사랑가

어허 둥〃 내 사랑아/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양태진을 대한 듯/ 숙낭자를 대한 듯/ 월서시를 대한 듯/ 우미인을 대한 듯/ 둥〃 내 사랑 어허 둥 내 사랑/ 내 죽어도 네 못 살고/ 네 죽어도 내 못 살리[39]

이 노래는 옥산의 방랑을 종식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서 두 사람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백화는 진사, 급제, 수찬(修撰), 참관, 판서 등의 벼슬을 들어가며 거지가 돼 돌아왔음에도 옥산을 최고의 낭군으로 드높인다. 이에 옥산은 양태진, 숙낭자, 월서시, 우미인에 백화를 비유하며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다. 〈춘향전〉에 비해 관직명도 간략화되어 있으며,[40] "당나라 당명황이 양귀비를 만난 사랑"은 "양태진을대한 듯"으로, "역발산 초패왕이 우미인을 만난 사랑"은 "우미인을대한 듯"으로 수식이 축약돼 있으며, 단어 역시 변용되고 있음을 볼

39) 『인정루』 4권, pp. 581-586.

40) 〈춘향전〉에서는 진사급제, 직부주서, 한림학사, 부승지, 좌승지, 도승지, 당상, 내직, 각신, 대교, 대사성, 판서, 좌상 우상 영상, 규장각, 내삼천 외팔백 등 다양한 관직이 몽룡을 수식하는 데 활용된다. 〈완판 열녀춘향수절가〉, 앞의 책, pp. 122-123 참조.

수 있다.[41] 그러나 나열하는 관직명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은 사회적 성공 여부를, 여성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주요한 가치로 삼고 있음은 동일하다 하겠다.

이렇게 노래로써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도 옥산은 일부러 값비싼 술잔을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술에 취한 척 억지로 토를 하여 금침을 더럽히기도 하며 재차 백화를 시험한다. 그러나 백화는 그의 실수에도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여러 번 백화의 마음을 확인한 옥산은 "절대가인 조강지처 김백화 개봉"[42]이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내어 백화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자신이 오늘 암행어사 출두를 할 것임을 밝힌다. "절대가인 조강지처"라는 수식이 말해주듯이 그녀는 봉건사회의 이상적인 여성상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이후, 백화는 초혼인 줄 알았던 옥산이 두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43]

옥산 외에 박대감과 월게 이야기에서도 여성의 정절을 확인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그려진다. 박대감은 탐관오리 김득보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월게와 송죽을 불러들여 정절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진다. 마치 이몽룡이 옥살이하던 춘향을 불러내 다시 한

41) 연년 칠월 칠석야에 견우직녀 만난 사랑/ 육관대사 성진이가 팔선녀와 노는 사랑/ 역발산 초패왕이 우미인을 만난 사랑/ 당나라 당명황이 양귀비를 만난 사랑/ 명사십리 해당화 같이 연연히 고운 사랑, 네가 모두 사랑이로구나. 위의 책, p. 109.

42) 『인정루』 4권, p. 715.

43) 백화는 옥산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곧 잇뿐이에게 오라버니가 생겨 기쁠 것이라며 마음을 푼다. "바로 내 맏아들은 문일남인데요 함경감사로 게시지요. 둘째 아들은 문이남인데요 그는 박진사의 동리에 있지요." 하니 백화 눈이 뚱그레하야 물는 말이 "아니 당신이 무에라 말씀 하였는가요. 나는 아들도 없고 부인도 없다 한 것인데요. 그러면 나를 적은 댁으로 덜이고 왔는가요. 그래 큰댁이 있는데는 엇지 하여 가지 못하는가요. 별일도 다 많아여요. […] 그러면 잇뿐이도 장남한 오라버니 있고만 만나면 깁버하겟지" 『인정루』 5권, p. 723.

번 그녀의 마음을 시험하듯, 두 사람을 떠보는 것이다.

> 너의들 사연이 그럴진댄 서울 가신 대감님이 이십 년이 근 되도록 오지 않은 대감님을 너는 창녀로 엇지 그분만 고대하엿스랴. 그동안 너는 민가 부인이 되야 낙을 보앗슬 터인데 네 그 딸노 말미암아 옥중에서 신음과 고통이 무서운 형벌을 당할 때에 네 남편은 어대로 가고 구치 못하엿단 말이냐? […]
>
> 나의 심중에 품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외다. 긔생으로 낫게 구운 창녀라도 엇지 절개가 없으리요. […] 지금 평양감사 독사리가 내 딸 송죽이를 탐욕하여 말 못할 악형으르 하지마는 일호라도 변심하고 그 악형이 두렵다고 그 조부모같은 그에게 굽절니요. […] 나의게 무슨 남편이 있어 내가 이와 같은 형상에 처하여도 몸을 빛이고 도으며 무슨 다른 자식이 있어 그 자식이 애통하고 돕으리요.[44]
>
> 박영감-박대감과는 내가 친절한 친고간이라. 친고를 상종하던 퇴긔월게라 하니 나는 허물치 않고 대쾰 소쾰 족쇠까지 벗기어 너의 딸은 무죄방송으로 하옥식힐 것이고 너도 무죄방송할 터이니 내가 이곳에 멫날 뉴숙하는 그 사이에 수청을 들어 내 마음을 상쾨하게 함이 엇더한가? […]
>
> 월게는 대상하게 업드러 지며 통곡하여 하난 말이 […] 어명을 가지고 오신 대감님이라도 열토막 내여 오작에 밥은 될지언정 대감님이 수청 들나는 말삼은 거역하나이다. 차라리 우리 두 모녀 간을 죽여 오작의 밥이 되게 하여 주기만 바라나이다.[45]

박대감이 월게가 재가하지 않고 혼자 살았는가를 확인한 후, 자기 수청을 들라는 명령을 내리자 월게는 천한 창녀라도 어찌 절개가 없겠느냐며 수청을 드느니 차라리 두 모녀, 오작(烏鵲)의 밥이 되겠다며 결연한 대답을 한다. 이에 박대감은 그동안 자신이 무심했음을 생각하며 다른 무고한 죄인들과 함께 두 모녀를 석방시킨다. 그리고 그녀의 집을 찾아가 해후하고 사람들 앞에서 송죽이

---

44) 『인정루』 4권, pp. 65-70.
45) 위의 책, pp. 71-73.

자기 딸임을 밝힌다. 모녀가 등장한다는 차이는 있으나 본 이야기는 돌아온 몽룡에 의해 삶이 구원되는 춘향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이 외, 또 다른 이야기인 리정승과 완월 모자(母子)의 재회에서도 완월이 정절을 지키며 홀로 아들을 키워냈기 때문에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정절은 재회의 결정적 요인이 되며, 여성의 자기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다. 백화, 월게, 완월은 공통적으로 정절을 지키며 떠난 님을 오매불망 기다리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재회의 순간을 맞이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구제된다. 이는 전형적인 봉건사회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의 삶은 개인적인 사랑의 완성에 그치지 않고 백성을 구휼하는 공적 역할까지 훌륭히 수행해내는 데서 그 의미가 강화되고 있는 데 반해, 여성은 이처럼 자기희생을 감내해야 하며 남성인물들의 구제가 없다면 행복에 이룰 수 없는 수동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옥산이나 박대감은 이념성이 강화된 이몽룡, 김득보는 변학도와 같은 인물이라면 백화나 월게, 송죽은 춘향 캐릭터의 변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남성중심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본 작품은 봉건질서에 부합하는 남성중심적인 가족 재회를 그리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여인에게는 모두 자식이 있다. 여성들은 기다림의 세월에 보상을 받고 있으나, 만약 자식이 없었다면 재회가 이루어졌을지 의문이다. 박대감은 월게를 만날 목적이 아니라 공적 임무 차 평양에 왔다가 우연히 월게 모녀과 상봉한다. 그리고 임무를 끝낸 후에는 다시 본가로 돌아간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위인 일심을 새로운 평양감사로 보내 월게와 송죽을 돌보도록 하고, 편지를 내 송죽을 결혼시키라 이른다.[46] 자신의 현 위치를 벗어나

46) 일심은 아내를 잃은 후, 모란과 재혼한다.

지 않는 범위에서 게월에게 옛 연인으로서, 또한 송죽에게는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재회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처럼 기생과의 한때 인연을 정식 혼인 관계로 끌고 가지 않는 것은 봉건가족 질서를 따르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시각은 리정승도의 예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목적 때문에 완월과 아들 일심을 찾아나선다. 부인과 아들을 잃은 외로운 처지가 되자 옛 인연이 생각난 것이다.

> 자긔가 처음 과거에 대과하던 평양감사 홍패가 있거날 그 홍패를 펼쳐 보니 홍패 속에 "완월"이 리별할 때에 리별서를 써서 넣은 것이 있으니 […] 귀생이나 천생이나 그는 불구하고 그는 나의 기출인데 […] 셋 식구는 서로 그립던 회포를 놓우니 리정승의 가슴에는 좀 무엇함이 있엇으나 이제로 붙어는 긔막하게 되엿든 그 신세가 아들 일심이와 부인 완월이를 맞나니 마치 니를테면 망〃한 무변대해에서 일엽편 선주을 타고 순풍을 맞나 배노리를 마음대로 하다가 불시에 폭풍이 불어와 노한 파도에 돗대도 불너지고 살대도 잃어 따리도 없어 한 개의 파선된 널쪽을 타고 이리저리 밀녀 단니며 살 길이 없어 헤매다가 대륙을 맞나 상륙함과 같으니 엇찌 요행함이 아니리요. […] 정승의 공명과 부귀는 일시에 의지없고 주인이 없게 되엿더니 요행이나 불연에 생각지 않던 아들 일심이와 부인 완월이를 맞나 외로하던 리정승의 신세가 의지를 맞나 그 가정에 영화를 겨우 보전하게 되엿니라.[47]

그러나, 완월은 갑자기 찾아온 리정승에 대해 원망하기보다는 반가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질 따름이다. 이들의 이별과 재회는 모두 리정승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리정승은 평양감사 시절, 체면 때문에 완월과 아들을 두고 떠났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리정승이 정실부인과 아들을 잃지 않았다면 이들의 재회는 이

47) 『인정루』 1권, pp. 67-70.

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완월 모자를 찾아 서울로 데리고 온 것은 사랑과 책임감에 앞서 무너진 가족을 복원하고, 자신의 부귀공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더 큰 이유로 작용한 것이다. 말하자면 완월 모자는 리정승의 죽은 처와 아들을 대체하는 인물들로, 리정승의 입장에서의 재회는 정식 혼인 관계의 불행을 보상해줄 차선의 가족 회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본 서사는 〈춘향전〉에서 보여주는 신분을 초월한 청춘남녀의 낭만적인 사랑보다는 봉건적 가족질서를 기반으로 남성인물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옥산이 보여주었던 평등, 계급타파 의식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는 남녀평등까지 포괄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남녀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인정루〉 안에 펼쳐지는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과부(寡婦)의 재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데,[48] 이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열린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 가족 찾기에 '신표'(信標)인 반지가 등장하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라 하겠다.[49] 옥산은 헤어진 아들 일남, 이남에게 편지를 내면서 10년 후 평양 들어가는 대로변에 비석을 세워 거기에 편지랑 네 어미(초산) 옥지환과 주소를 둘 터이니 자신을 찾아오라 이른다.[50] 또한 옥산과 그의 셋째 부인 버들꽃의 재회에서는 금지환이 큰 역할을 한다. 버들꽃은 홀로 아들 금봉을 키우며 살

48) 이에 대해서는 김현주, 앞의 논문(2018b)에서 밝힌 바 있다.

49) 신표는 유리왕이 주몽의 신표인 반토막의 칼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떠나는 심부형(尋父形) 설화에도 등장하는 것이다. 옥산이 아들에게 전하는 말에서 심부형 설화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으나, 반지를 매개로 아버지 찾기 서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50) 옥산이 궤에 실려 갈 때 그를 구하려던 개 네눈이도 같이 떠내려가게 된다. 네눈이는 사람처럼 바다까지 떠내려간 옥산을 구하고, 그의 편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일남에게 전달한다.

아가다 옥산의 딸 잇뿐이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잇뿐이의 옥 박힌 금지환이 옛날에 자신이 옥산에게 정표로 준 것임을 확인하고,[51] 그 덕분에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옥산과도 재회하게 되는 것이다.

> 십 년 후에 평양시로 들어가는 대로변에 큰 비석을 하여 세우고 대자(大字)로 그 비석에 문용남의 묘라 써 붙일 것이니 너 두 형제는 찾어와 그 비석을 세운 조묘를 파고 보면 내가 함을 짜 파 묻을 것이니 그 함을 열고 보면 그 함 속에 나의 친필노 쓴 편지가 나질 것이고 네 어미 옥지환이 겸하여 있을 터인즉 나의 생사를 알 것이고 거처의 번지를 써 넣을 것이니 그 반지를 가지고 찾어와 십 년이라 장구한 세월을 보내엿으니 부자간 정표 너의 어머니 그 금지환을 가지고 오면 면목이 변한 너의들을 정표로 나는 일남이와 이남인 줄 알고 찾을 것이 아니냐[52]
>
> 나도 성은 문「文」이요. 일홈은 잇뿐이라 부르나이다. 문가는 본이 일본이고 문가면 통혼은 못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부친이 문용남인데요.
>
> 하고그 처녀는 무엇을 많이 생각하다가 손가락에 낀 금지환에 옥을 박은 지환을 가르치며 하는 말이
>
> 내 손에 낀 옥을 박은 금지환이 면목이 있는가요.
>
> 하니 버들꽃은 그 처녀를 아모 말도 못 하고 한참 멍하고 보다가 하는 말이 […]
>
> 너의 부친이 문용남이라 하고 네가 손가락에 끼고 온 금지환이 내 그와 정이 들어 속사길 때 선물노 준 금지환이 생각나서 말은 못 하고 있엇지만 엇지하여 면목이 없으랴. […] 문용남에 딸이면 내 딸이고 저긔 세상불변으로 자는 사람은 네 오라바니로구나. […]
>
> 버들꽃은 일생에 원을 끄고 남편 문용남을 맞나게 되엿도다.[53]

---

51) 버들꽃은 아들 금봉을 낳아 산에서 살아간다. 금봉은 세상 구경하러 송정에 왔다가 제일 좋은 집을 구경하게 된다. 그곳이 바로 자기 아버지 옥산의 집이다. 이 사실을 모른 금봉은 마침 집에 있던 잇뿐이(이복 동생)를 보고는 그 미모에 반해 그녀를 납치해 온다.

52) 『인정루』 2권, pp. 81-82.

53) 『인정루』 5권, pp. 867-869.

반지로 서로를 확인하는 것은 〈춘향전〉과 같은 애정소설에서 볼 수 있는 소재로, 본 서사에서는 이것이 가족 재회를 기약하거나 실제 재회를 이끌어내는 장면에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옥산이 옥지환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라 했으나 일남이 이를 찾는 장면은 그려지지 않으며 재회의 순간에도 반지는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버들꽃이 옥산에게 반지를 주는 장면도 서사에 등장한 적이 없다. 이처럼 신표가 서사 전반에 걸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거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 작가가 이야기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고전의 신표 이야기를 각색해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살펴본 바와 같이 출세한 남성의 귀환, 수청들기를 강요하는 탐관오리, 수탈당하는 백성, 암행어사 신분을 숨기고 거지 행색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떠보는 일, 여성의 정절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암행어사 출두, 부정한 인물 징치, '사랑가', 정절을 지키며 고난을 인내한 여인의 사랑 성취, 그리고 신표 확인 등은 〈춘향전〉의 장면들을 각색, 변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장면들은 하나의 서사 안에 집중되어 체계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옥산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 군데군데 펼쳐져 있다. 이 조각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면 전체적으로 〈춘향전〉과 유사한 서사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춘향전〉에서 여러 소재들을 차용, 변용하고 있으나 본 작품에서는 자식을 둔 가족 테마로 유사한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남성중심의 봉건적인 가족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헤어진 가족들은 재회를 통해 행복을 얻지만, 남성들은 가족 제도의 틀 안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 리정승과 박대감 둘 다 재회 이후, 가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자식 혼사에 힘을 쓰는 데에서도 성숙한 부부, 그리고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 데 주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옥산이나 박대감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남성인물들의 대의적 활약이 강화, 부각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하겠다. 말하자면 작가는 〈춘향전〉을 가족 서사로 재구성함으로써 봉건적 가족 질서 회복과 사회적 모순을 타개하고자 하는 염원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인정루〉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족과의 이별과 재회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작품에서는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로 부모, 아내, 자식 모두와 이별하는 옥산을 비롯하여 평양감사와 기생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서사 전반에 걸쳐 홀아비, 과부 등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별한 이들은 이후, 극적인 재회를 하거나 새로운 가정을 구성함으로써 행복한 삶에 도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삶을 형상화하는 데에 한국 고전문학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본 작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출세한 남성의 귀환, 탐관오리 징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인, 암행어사 출두, '사랑가', 신표(信標) 등은 〈춘향전〉에서 익히 보아온 소재들이다. 본 작품에서는 이를 청춘남녀의 사랑이 아닌, 자식을 둔 가족 이야기로 변용하여 남성중심적인 봉건적 가족 복원에의 희구를 담아내는 한편, 남성의 대의적인 활약을 보다 부각함으로써 현실모순을 타개하려는 정치적 이념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루〉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혈통을 기반으로 한 문중 중심의 공동체 모습을 그리지 않는다. 서사에서 주요 모티브로 삼고 있는 가족 이별, 떠남, 주인공의 다양한 신분 등은 봉건사회에서는 흔치 않은 삶의 모습으로서 안정된 가

정이나 공동체를 세울 수 없는 사회적 여건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반복적으로 이주 역사를 경험했던 고려인의 삶과 닮은 부분이라 하겠다. 특히 옥산에게 드러나는 계급타파, 평등사상 등은 구소련의 사회주의 이념적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주 후 점차 당의 이념성을 따르고자 했던 고려인 희곡 작가들의 고전 수용양상과 그 궤를 함께하는 것이다. 즉 본 작품은 작가가 고전 소재들을 당대의 문제에 적용, 현대화한 것으로서 고려인 삶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작가가 고려인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려내지 않고, 이처럼 고전소설의 형식을 빌어 작품화한 데는 정치적인 현실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고려인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였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본 작품도 구소련 체제인 1984년에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자유롭게 다루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기록문학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자전적 소설 〈아부지와 홍범도〉에서도 강제 이주 문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본 작품에서 가족과의 이별은 이야기하지만 고향 상실, 귀향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 역시 고향과 같은 연해주를 떠난 이주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구소련의 소수민족 문화정책과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구명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구소련의 사회주의 문화정책으로서 구술문학이 가진 이념성, 정치성과 관련하여 본 작품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고려인의 문화 전승 양상과 집단의식을 밝힐 필요가 있다.[54]

---

54) "스탈린 시대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예술창작의 새로운 원칙으로 규정되었고, 구술문학은 그러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원형으로 재평가되었다. 그러나 스탈린 사망 후, 이전 시대의 폭압적 문화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인공 옥산이 훈장으로 있으면서 경사자집(經史子集)이 아닌, 고전 이야기로 산골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나,[55] 고담(古談)을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스탈린 테제 아래 이루어졌던 연해주 고려인의 민족문화운동이 문금동 작가의식과 문학세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긴 작품 분량에도 주인공 이름 문옥산(文玉山)을 비롯한 몇몇 이름 외에는 한자 사용이 없는 것도 당시 문화운동의 일환인 언어교육과 관련되기 때문이다.[56] 또한 문금동과 동시대에 살았던 고려인 작가들의 작품 가운데 고전을 각색한 희곡 작품들이 많은 만큼, 무대에 올려졌던 희곡 작품과 본 소설에 드러난 인물형상화의 특징, 봉건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 구소련 체제의 이념 수용 양상과 관련한 작품의 예술성과 정치성 등을 비교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작가의 삶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디아스포라의 삶의 고통은 자신들의 땅에 살 수 없으며, 조상들의 언어, 역사, 문화를 제대로 이

주를 이루던 1950년대의 구술문학 논쟁은 1960~1970년대 이르러 구술문학의 본질을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였다." 서선정, 「민중의 문학에서 허위 민속으로-비평 속에 드러난 소비에트 구술문학과 이데올로기-」, 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소, 『러시아 연구』 제24권 1호, 2014, p. 79.

55) "시장에 나가 소설덜 춘향전 심청전 양삼백전 놀부와 흥부전 유충렬전 홍길동전 삼국지 이 여러 가지 전책들을 한 짐 싸 봇다리에 지고 산수갑산으로 그는 떠나니라." 〈인정루〉 2권, p. 177.

56) "'형식상 민족적, 내용상 사회주의적'이라는 스탈린의 테제는 보편성과 단일성을 가지는 프롤레타리아 문화와 고유성과 다양성을 가지는 민족문화가 각각 내용과 형식을 채우며 모순 없이 조화롭게 상호 발전해 가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스탈린 테제에서 민족적 형식으로 가장 중시한 것은 언어였다. […] 고려인 사회에서는 고려어 교육과 문맹퇴치 등의 기치를 내걸고 '고려화'를 추진하게 된다." 임경화, 「'붉은 한글운동'의 기원-소련시대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언어운동-」,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소, 『한국문화』 제73집, 2016, pp. 182-183, p. 184.

어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변화시켜 나가며 자신들만의 독창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인정루〉는 이러한 면모를 보여주는 소설로서, 고전 소재를 동원하여 고려인의 문화와 역사를 집단기억에 싣고자 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부침의 세월 속에서도 이처럼 고전을 기억하여 문학화하고 있는 점은 문화전승의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작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문금동의 문학세계뿐 아니라 여러 장르에 걸친 고려인 문학의 한국고전 수용양상과 그 문화사적 의미를 구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문금동, 『인정루』 1-5권, 『부록』.
문금동, 『인정루』 1-9권, 현대문화사, 2017.

2. 논문 및 단행본

강진구,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역사 복원 욕망 연구-김세일의 장편소설 〈홍범도〉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학회 ·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연구』 제25호, 2004, pp. 302-329.
강진구, 「제국을 향한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의 자기 고백 :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특징」,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제29집, 2006, pp. 171-201.
강현모, 「우즈벡 고려인의 구비설화 전승양상과 의미-전승방식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제45집, 2011, pp. 351-379.
강현모, 「우즈벡 고려인의 구비설화의 양상」,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제47집, 2012, pp. 387-416.
강현모, 「우즈벡 고려인 구비설화의 전승 내용과 의미」,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제51집, 2013, pp. 147-169.

강회진, 「≪레닌기치≫에 수록된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비평 고찰」, 시학과 언어학회, 『시학과 언어학』 제30호, 2015, pp. 69-95.
강회진, 「중앙아시아 고려인 극평 고찰-신문 ≪레닌기치≫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제41호, 2017, pp. 101-124.
고송무, 『쏘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이론과 실천, 1990.
김종회 엮음,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1937~1991)』, 강남대학교출판부, 2004.
김현주, 「문금동 소설 〈인정루〉 연구」,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제77집, 2017, pp. 267-299.
김현주, 「문금동의 자전적 소설 〈아부지와 홍범도〉 연구」,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제79집, 2018, pp. 263-289.
김현주, 「문금동의 장편소설 〈인정루〉에 나타난 금기위반 양상에 관한 연구-과부(寡婦)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언어학회, 『어문론총』 제77호, 2018, pp. 113-138.
김현주, 「〈인정루〉의 '고담(古談)'에 나타난 한국 전통설화 변용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제142집, 2018, pp. 255-280.
반병률, 「러시아 지역 한인신문 ≪선봉≫과 1920 · 30년대 한인사회」, 한국외국어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제19집, 2003, pp. 63-92.
배은경 · 임영상, 「원동 고려문단의 형성과 그 초기작품 연구-고려인 신문 ≪선봉≫에 기초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제56집, 2015, pp. 249-290.
서선정, 「민중의 문학에서 허위 민속으로-비평 속에 드러난 소비에트 구술문학과 이데올로기-」, 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소, 『러시아 연구』 제24권 1호, 2014, pp. 79-116.
송재일, 「카자흐스탄 고려인 희곡의 고전 수용 양상과 의미」, 어문연구학회, 『어문연구』 제93권, 2017, pp. 277-301.
우정권 · 임형모, 「고려인 문학의 성격과 전개 양상 : 1940~60년대 ≪레닌기치≫ 문예면에 나타난 고려인 문학의 특징 고찰」,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44호, 2010, pp. 229-265.
이명재,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 한국문화사, 2004.
이복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 연구」, 동아시아고대학회, 『동아시아고대학』 제16집, 2007, pp. 323-346.

작자 미상, 『춘향전』, 이석래 역주, 범우, 2009.
임경화, 「'붉은 한글운동'의 기원-소련시대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언어운동-」,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 제73집, 2016, pp. 179-206.
임형모, 「강제적 '집단이주'의 인간학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강제이주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51호, 2012, pp. 95-126.
장사선 · 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 월인, 2005.
조규익, 「고려인 극작가 연성용의 고전수용 양상-〈창곡이와 홍란〉 · 〈지옥의 종소리〉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회,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6호, 2012, pp. 323-356.
조규익, 「카자흐스탄 고려인 극작가 한진의 고전 수용 양상-〈량반전〉과 〈토끼의 모험〉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제162호, 2012, pp. 413-442.
타치아나 심비르체바 · 임경화, 「고려인 작가 문금동과 그의 장편소설 『인정루』 소개 및 시론적 고찰」,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35집, 2014, pp. 451-473.

(투고일: 2021. 2. 14 심사완료일: 2021. 3. 19 게재확정일: 2021. 3. 23)

김현주
소 속: 대구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칼리지
주 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대구가톨릭대학교 성체칠리아관(D17) 347호
전자우편: fussen677@cu.ac.kr

[Abstract]

A Study on Family Farewell and Reunion in Moon, Geum-dong's Novel *Injeongru*

-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f *Chunhyangjeon* in the Reunion -

Kim, Hyun-ju

In *Injeongru*, a novel by Goryeoin author Moon, Geum-dong, family separation and reunion are depicted repeatedly. In particular, the return of a successful man appearing in the reunion scene, a woman who refuses bed service and maintains fidelity, salang-ga, the appearance of royal secret investigator, and punishment about an unclean character are adaptations of the character figuration and contents of *Chunhyangjeon*. However, in this work, it is not a love story that transcends status, but instead focuses on realizing the male-centered feudal familyist ideology by transforming it into a family theme having children.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een that men's ability to perform great cause duties is being highlighted, and the protagonist Ok-san has a reformed attitude such as class breakdown and equality ideology. This is in harmony with the classical acceptance pattern of Goryeoin plays writers who gradually sought to follow the socialist ideology of the former Soviet Union after forced migration.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broadened the genre of Goryeoin literature research related to Korean classics by revealing that *Chunhyangjeon* was inherited not only in Goryeoin plays but also in novels.

Key words: family, farewell, reunion, Chunhyangjeon, transformation, feudal, great cause, Goryeoin, forced migration